

독보 김예환 박사님 추모 3주기



2020년 11월 23일 환일중고등학교 강당에서 독보 김예환 박사님의 추모 3주기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유병진 명지대학교 총장님의 추모사 낭독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다음 순서로 고 김예환 박사님의 생전 인터뷰 영상을 보며 우리 역사 속에서 박사님의 행적과 그로 인한 교육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영상 상영을 마치고 이어진 금관 5중주 연주는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선율로 추모식의 의미를 더 절제 만들기에 적절했다. 고 김예환 박사님은 일제강점기 시대 일제의 국민총동원령에 의해 일본군에 징집되어 러시아에서 포로생활을 한 적이 있다. 그 곳에서 줄을 이루고 질서를 지키며 물 한 모금도 나누어 마시는 배운 민족과 그렇지 못하고 서로 마시려다 결국 물을 쏟아 버리는 배우지 못한 민족의 상반된 모습에서 박사님은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하신 바 있다. 그리고 생전 자신의 이념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문화학원은 모범 사학의 모델이 되었다.

이번 독보 김예환 박사님의 3주기 추모식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생 모두 강당에 입실 할 수는 없었지만 영상을 통해 박사님의 교육이념을 담고 또 이를 실현케 하기 위해 나아감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2학년 이진호 기자



힘찬 새해를 소망하며

김은미 이사장님

첫눈이 내리는 교정을 보면서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혼란의 시기 속에서도 아름다운 겨울이 소리 없이 찾아왔구나 하는 작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감춰주고, 순백의 겨울로 치장하는 첫눈 속에서 먼저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 속에서도 환일의 교직원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희생되지 않고, 무사히 지켜주셨습니다.

환일의 언덕 위에 우뚝 솟은 교정을 내려다보면서 감사와 은총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세계 속의 혼란과 경악 속에서도 우리는 곳곳이 그 자리를 뚫내고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오늘, 우리는 그래도 한 걸음씩 꾸준히 걷고 있습니다. 지나치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굴하지 않는 의지로 걷고 있습니다.

On-line 수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교사들도 학생들도, 모두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곳곳이 피어나는 나무와 야생화같이 우리의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서 또 한 해가 가고, 새로운 날들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봄을 기대하면서 교정에 활짝 핀 개나리와 빛깔의 화려함을 기대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은행나무의 푸르름 속에서 우리 환일의 건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소리치며 공부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환일 학생 여러분, 교직원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힘찬 새해가 다가오길 소망하면서 주님의 은총이 온 환일 동산에 내리우길 기도드립니다.



추모사

이정철 교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독보 김예환 박사님께서 영면하신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김예환 박사님은 해방 후 어수선했던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민족 교육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신 교육계의 거목이었습니다.

김예환 박사님은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일깨워주시기 위해, 인간 사회에서 가장 귀중한 영혼의 구원과 육영 사업에 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선구자이자 시대의 등불이었습니다.

김예환 박사님은 평소 '교육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하에 열정적으로 후학을 양성하셨고, 먼 미래를 내다 본 교육이념으로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직업은 무엇이나 좋다. 제1인자가 되자.'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라는 학교 표어를 만들어 저희 교사와 학생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일인은 최후의 승리자 김예환 박사님을 늘 기억하면서, 민족의 번영을 최우선으로 여기셨던 박사님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 애국, 애인의 건학이념을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예환 박사님의 교육관을 새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생각하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창조적인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직업은 무엇이나 좋다. 창조적인 자가 되라'는 김은미 이사장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AI를 기반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더욱 빛나는 환일인이 되겠습니다.

독보 김예환 박사님! 하나님 품에서 편히 잠드소서!

1면-12면 주요내용 소개

1면 독보 김예환 박사님 추모 3주기, 이사장님 글, 추모사

2면-8면 학교 행사

9면-11면 소감문

12면 수상 및 주요 학사일정



학교행사

73주년 개교 기념식 및 예배

2020년 9월 24일 본교 대강당에서 운화학원 개교 73주년 개교기념식 및 예배를 진행하였다. 1부는 개교기념예배로 진행하였는데 이종희 중학교 교감님의 사회와 강홍구 중학교 교장님의 기도, 박종관 목사님의 '역사는 거울이다'라는 설교 말씀으로 드러졌다.

2부는 개교기념식으로 이정철 교감님의 사회로 진행하였는데 학교 연합 및 설립자이신 김영순 장로님과 독보 김예환 박사님의 소개가 담긴 슬라이드쇼가 있었다. 개교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축하연주로 2학년 최건혁 학생의 바이올린 연주, 1학년 박주형 학생의 클라리넷 연주가 있었고 특별히 연주자들을 초청하여 금관 5중주를 통해 기념식 자리를 빛냈다. 김은미 이사장님의 개교 기념사를 통해 운화 학원 73주년 개교 기념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환일인으로 한 번 더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해 나가길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과 학생 대상으로 표창이 있었는데 운화상에 변인숙 중학교 행정 실장님, 한재혁 부장님, 독보상에 구정희 부장님, 유승남 중학교 부장님이 수상하였고, 자랑스러운 학생 대상으로 과학 영재 2학년 고성주, 김현수, 융합 인재 2학년 나승민, 정찬우, 미래 인재 3학년 김용현, 2학년 진진우, 창의 인재 2학년 임성주, 송준, 체육 영재 3학년 윤서영, 2학년 이승훈 학생이 부문 별로 수상하였다.

2학년 임현석 기자



개교 73주년 기념 열린 음악회

2020년 10월 30일 개교 73주년을 기념하여 가을밤 열린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올해는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인해 평소보다는 운동장 관람인원에 제한을 두고 진행이 되었다. 이날 열린음악회 행사는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되었으며 공연시간이 길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였고 이날 총 8팀이 나왔는데 1부에 4팀, 2부에 4팀 마지막으로 환일고 합창부가 환일찬가와 교가를 부르며 환일인 전체가 가지고 있던 풍선을 하늘로 날리고 폭죽을 터트리면서 식이 끝났다.

1부와 2부에 나왔던 8팀은 클래식, 발라드, 대중가요, 뮤지컬 음악,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하였고 모든 공연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 질서정연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또한 열린 음악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연한 가수분들과 환일고 재학생 그리고 환일고 학생회 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다른 해와 같이 올해도 아름다운 열린음악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로 인한 악조건 속에도 2020년 열린음악회를 안전하고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공연을 위해서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고 올해의 열린음악회가 환일인들 가슴속에 환일을 다니면서 있었던 소중한 추억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1학년 임형준 기자



추수 감사 예배

한 해동안 여러 가지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2020년 11월 16일 10시 추수 감사 예배를 본교 대강당에서 드렸다. 김철우 전도사님의 사회로 진행된 추수 감사 예배는 학급에서 학생들이 준비해 온 과일 바구니의 모습에서 감사함과 가을의 결실을 느낄 수 있는 풍성함이 가득했다.

특수으로는 환일고 졸업생인 안준원 성악가가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곡으로 추수 감사 예배를 한층 더 은혜롭게 해주었다. 만리현 성결교회 교육총괄 목사이신 서대훈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셨다.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한 부분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은 부분도 감사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다. 환일중 · 고 학생 및 교사가 준비한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이 있었고 이 헌금은 주변에 소외된 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예배 후 교사를 대표해서 김철우 전도사님, 탁우빈 선생님과 함께 학생 대표 2학년 4반 황정우 선교부장과 1학년 9반 이효민 선교 부장이 노인정, 남산원, 쪽방촌에 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과일을 나눠드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 19로 힘든 한 해인데 주변에 소외된 분들을 챙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2학년 류호빈 기자





학교행사

봉학마루제

2020년 10월 29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봉학마루제가 개최되었다. 학교 운동장과 교실 곳곳에 다양한 체험활동들과 동아리가 준비한 맛난 먹거리가 가득했다. 매년 인기 만점 메뉴인 파베기와 소세지를 먹을 수 있는 쿠폰을 받은 후, 9시부터 부스 체험을 하였다. 이번에는 작년보다 훨씬 많은 부스들이 있었는데, 특히 네잎클로버로 장식용 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또한 미술부에서 개최하는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도 재미있었는데, 붓으로 티셔츠에 물감을 묻히고 바르는 것이 아주 흥미로웠다.

한편 강당에서는 흥겨운 공연이 한창이었다. 끼 있는 후배들의 무대와 랩, 그리고 비트 메이커를 이용한 팝송까지 다양한 무대가 있었다. 하지만 가장 백미는 졸업생들의 요요 공연이었다.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노래에 맞춰 요요를 던지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 모두가 이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과 노력을 했을까 생각하니 박수가 저절로 나왔다. 그 다음은 올스타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2학년 팀이 3:1로 우승했다.

2학년들에게는 마지막 봉학마루제라서 아쉬웠지만 후배들이 꾸밀 다음 봉학마루제는 어떤 멋진 모습일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된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축제를 하지 않을까봐 염려되었는데 다행히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날씨도 좋아서 우리에게 힘을 주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 학부모님들께서도 방역 규칙을 잘 지켜주셔서 무사히 끝날 수 있었고 참 뿌듯했다.

2학년 김민규 기자



2020년 환일고등학교 합창대회

2020년 11월 13일 힘들었던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시기에, 환일중고등학교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고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합창대회를 열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협요소에 근심이 많았으나,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동의하에 외부인 출입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탁우빈 선생님, 최윤경 선생님, 중학교 서지호 학생, 김태운 학생, 고등학교 이희현 학생, 김도현 학생, 김세중 학생, 송원준 학생이 사회를 맡았고, 강홍구 환일중교장님께서 기도하시고, 박종관 환일고교장님께서 격려사를 하시며 대회를 시작했다. 그 다음 내빈 분들, 심사위원 분들을 소개하고, 곧바로 중학교 본선을 진행하였다. 나이가 어린 중학생들이지만, 고등학교 형들 못지않게 좋은 합창실력과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대회에서 훌륭한 선두주자 역할을 해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의 본선을 진행했다. 입학식도 하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학교에 많이 나오지 못해 조금은 어색한 1학년이지만, 대회에서만 큰 2학년에 뒤지지 않는 단합력과 가창력을 보여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 번째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무대에 섰다. 두 번째 합창대회이기에 노련함이 돋보였고, 단합력, 가창력들이 뛰어났다. 본선이 모두 끝나고, 고등학교 1학년 박주형 학생의 특별공연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희광 심사위원께서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심사를 해주셨고, 김은미 이사장님과 김효숙 환일고부장님께서 수상관을 발표해주셨다. 열심히 노력하여 '거위의 꿈'을 훌륭하게 부른 2학년 7반이 대상의 영광을 누리면서, 앵콜 공연과 함께 대회를 끝마쳤다. 하루하루가 고되고 항상 긴장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대회를 잘 마무리한 환일이었다.

2학년 임현석 기자





학교행사

1학년 체육대회

화창하고 은행잎이 물든 가을날 2020학년도 11월 12일 1학년 체육대회가 개최 되었다. 아침부터 달리기 예선과 이벤트성 매치인 선생님들의 달리기 경주도 있었다. 윤도은학생이 엄청난 속도로 일등을 차지하였고, 2등은 장강희 학생이었다. 개인 달리기가 마무리 되었고 오전에 있던 행사인 승부차기, 자유투, 족구에서는 각각 3반, 6반, 4반이 우승을 차지했고 뒤 이어 9반, 4반, 3반이 준우승 타이틀을 가져갔다.

밤을 먹은 후 메인이벤트 격인 농구 올스타, 축구 결승전, 800m계주 달리기가 진행 되었다. 가장 먼저 진행된 농구 올스타 경기는 뒷 반과 앞 반으로 팀을 나눠 진행하였는데 앞 반의 실수와 더불어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며 힘겨운 모습을 보였고 뒷 반팀은 안정적인 수비와 하술학생의 스틸플레이로 승리하게 되었다. 일주일간 진행된 치열했던 축구예선을 거치고 남은 반은 3반과 5반이었다. 그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 되어오던 두 반의 대결에 많은 학생들이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5반의 수비불안과 주축선수의 부상으로 참혹한 경기력을 보이며 패배했다. 반면 3반은 담임선생님의 열정적인 코칭에 더불어 마스코트인 김영민 학생의 존재감이 돋보이며 중앙지역을 장악하고 5골을 넣으며 대승을 거두었다. 기대감이 있는 경기였던 만큼 5반의 참패가 아쉬운 경기였다.

체육대회에 꽃인 계주에서는 순위대로 4반, 5반, 7반의 결과가 나왔다. 5반과 3반이 처음에 치고 나가는 듯 했으나 4반의 윤도은 학생이 압도적인 속도로 모두를 따돌리며 4반을 왕좌의 자리로 올려놨습니다. 윤도은 학생의 팔방미인적인 활약으로 4반의 종합우승으로 마무리 된 체육대회는 그동안 공부에 시달리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환일학생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고 반이 하나가 되어 경기를 치르고 응원하면서 서로 단합하는 화합의 장이었다. 가을날 승자와 패자 할 것 없이 모두 재미있게 즐기는 체육대회였다.

1학년 송무형 기자



2학년 체육대회

2020년 10월 23일 본교에서는 2학년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승부차기, 축구, 족구, 자유투, 100m달리기, 800m달리기 등의 종목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반이 참가한 승부차기에서 3반과 9반이 결승까지 올라왔다. 결승에서 3반과 9반은 끝까지 접점을 펼치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를 보여줬다. 1점 차이로 3반이 우승하고 아쉽게 9반이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800M 달리기의 경우 6반이 1등을 체육 중점반인 10반이 2등, 100M 달리기 1위인 유창환 학생의 활약으로 9반이 3등을 차지했다.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축구 경기는 체육대회 전에 예선을 통하여 두 팀을 선발하였는데 8반과 9반이 결승전에 진출하여 결승전을 진행하였다. 첫 골은 8반이 넣었다. 하지만 9반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가 되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경기를 풀어나갔다. 마침내 9반이 4 대 1로 역전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진정한 협동을 통하여 얻을 결과라 더욱 값지게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계주 경기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선생님들의 달리기 실력을 볼 수 있는 체육대회의 이벤트는 학생들에게 재미를 더해 주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는 친구들과 단합하여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부족하여서 아쉬웠는데 이번 체육대회를 통하여 단합력 뿐만 아니라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또, 학생들이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해 주어서 체육대회가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2학년 정다운 기자





학교행사

2021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입학 설명회

코로나 19의 상황 속에서 실내 집합 명령 50인 이내의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다른 해와는 다르게 사전에 입학 설명회에 참여할 학부모님들의 사전 신청을 받아 2020년 10월 20일 3시에는 본교 대강당에서, 6시에는 본교 경천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2021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입학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구정희 부장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김은미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과 박종관 교장님의 기도 및 인사 말씀으로 설명회의 시작을 알렸다. 학교 홍보 동영상 시청 후 이정철 교감님의 환일고 입학 방법과 특색 사업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 그 뒤를 이어 각부 부장님들의 환일고등학교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최원호 부장님의 학사 일정 안내, 오혜경 부장님의 진학 실적 및 교육 과정 안내, 임부현 부장님의 AI 융합 교육과정 안내, 김민선 부장님의 방과후 학교 안내, 신희재 선생님의 체육 특성과 학교 교육과정 소개가 있었다.

그 후 출신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강의실에 모여 본교 부장님과 함께 질의, 응답 시간이 있었고 설명회가 마무리 되었다. 많은 신입생들이 환일고에 지원하길 바란다.

AI 융합교육과정 설명회

2020년 11월 9일 본교 경천관에서 'AI 융합교육과정'에 관한 설명회가 있었다. 평소 AI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과 세종 심화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하여 진행하였는데 오혜경 부장님과 이정철 교감님께서 아주 유익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인상 깊었다.

AI 융합교육과정은 서울사에서 5개 학교가 진행되는데, 본교의 경우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와 함께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력과 윤리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인공지능 기초, 네트워크와 데이터 통신의 원리 이해와 실습을 다루는 컴퓨터 네트워크, 데이터의 가치와 역할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하는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로봇 등 다양한 SW 기자재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는 인공지능과 피지컬컴퓨팅, 데이터 구조의 이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자료 구조, 프로그램의 기획, 설계, 구현, 테스트 과정을 습득하는 프로그래밍 수업이 기존의 정보교과와 함께 개설될 예정이다.

우리가 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시대에는 AI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원격수업과 쌍방향 실시간 화상 수업 등으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기학과 빅데이터 관련 기술이 중요하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찾고 사람들의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인지하는 데 이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앞으로 AI관련 분야와 교육이 활성화되어 사람들의 기초와 취향을 반영하는 이상적인 4차 혁명 시대 가 오면 좋을 것 같다.

2학년 김민규 기자



대학연계 프로그램 빅 데이터 수업 (한성대)

2020년 10월 21일~11월 25일에 걸쳐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흐름에 발맞추어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적성에 맞는 교육 경험을 통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연계프로그램인 한성대 주관 빅데이터 특강을 본교 컴퓨터실에서 실시하였다.

사전에 빅데이터 특강을 원하는 학생들이 신청을 하여서 1학년 13명, 2학년 13명 총 26명의 학생이 총 12회 40시간의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한정된 인원이어서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만큼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수업이었다.

강의 내용은 데이터, 파이썬 기초 및 응용,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등 빅 데이터의 기초가 되는 이론 수업을 진행한 후 실질적으로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실습, 웹데이터 분석 실습 시간을 가졌다.

모든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을 마친 후 빅데이터 분석 발표 및 평가회를 가졌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이 분석한 자료에 대해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진로·적성 교육 프로그램이 본교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이론을 접하고 자신의 진로를 어떤 방향으로 정할지 경험해 보는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공학 캠프 (한양대)

서울시 지원 대학연계 프로그램인 한양대와 연계하여 1학기에 이어 2학기에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사전 신청자인 1학년 학생 18명, 2학년 학생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의 및 활동을 진행하였다. 1, 2학기를 합하면 총 30시간의 강의를 진행한 것이다.

특강으로는 1학기에는 '학교에서 배운 화학원리에 기초한 첨단관화 기술공학'이라는 주제로 이어 2학기에는 '학교에서 배운 물리 원리에 기초한 첨단과학 기술공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루어졌다. 물리라는 과목이 많은 기술 개발에 기초가 되는 과목이라는 것은 평소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특강을 듣고 나니 물리의 원리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 개발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수업 활동으로 평소 학생들이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에 관한 내용과 '정보를 주고받는 자동차 기어오르는 로봇', '기울기 센서를 이용한 1인승 운송 수단', '코로나 19 시대에 더욱 관심이 많아진 '드론', '울통볼통 달 표면을 달리는 월면 차'라는 활동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발표 및 평가회를 통해 자신이 평소 관심이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서울시 지원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였다.





학교행사

〈이춘근 박사 인문학 특강〉

‘미·중 패권전쟁과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2020년 11월 17일 본교 시청각실에서 ‘미·중 패권전쟁과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였다. 정치, 외교, 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지식과 소양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 이 특강의 취지이다. 참가 대상은 미·중 패권전쟁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이춘근 박사님께서 특강을 진행하셨다. 미·중 패권전쟁에 관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중 패권전쟁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이기에 미국 대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대선 결과에 대해 예측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의 대선 과정을 알아본 후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지, 왜 우위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특강 내용 관련된 내용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미·중 패권전쟁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이상적인가?’라는 주제로 학생들끼리 조별 발표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세계의 흐름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에서 나아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 또한 가질 수 있었다. 학생들이 세계정세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이춘근 박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2학년 지영훈 기자



〈류부곤 교수 명사 특강〉

‘말과 범죄’

10월 21일 수요일 6,7 교시에 류부곤 경찰대 교수님이 말과 범죄 - 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명사 특강을 진행하였다. 원래는 본교 대강당에서 모든 학생이 직접 강연을 듣는 것이었는데 이번 명사 특강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1,2학년 각자의 교실에서 동영상을 특강을 시청하였다. 특강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법학에서의 명예, 모욕, 특정 발언이 명예훼손이 될 조건, 정당화 되는 사유 등에 대해서 류부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흔하지 않은 내용이라 특강 내내 흥미로웠다. 특강을 마친 후 질문 시간을 가졌는데 질문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시청각실에 모여서 화상 통화 어플인 ZOOM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명예 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 외에도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학생이 질문하였는데 교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셨다. 그 외에 수준 높은 학생들의 질문이 나와서 질의 응답 시간의 열기가 뜨거웠다. 동영상과 ZOOM을 이용한 명사특강 첫 번째 시도임을 감안하면 진행도 매우 원활하였다. 법학이라는 학문은 자칫하면 어렵기만 하고 지루해질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친근한 사례와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주셔서 유익함과 흥미 둘 다 잡은 것 같다. 학생들에게 뜻깊은 명사특강이었다.

2학년 안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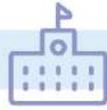
〈김대현 영화감독 명사 특강〉

‘영화감독으로서의 삶’

2020년 11월4일 영화감독이신 김대현 감독님께서 ‘영화감독으로서의 삶’이라는 주제로 명사특강을 해주셨다. 영화의 종류중 하나인 독립영화를 주로 찍으시는 김대현 감독님은 독립영화를 배경으로 특강을 진행해주셨고 각종 시각자료를 활용해서 우리들의 이해를 도와 주셨다. 특강을 진행하면서 김대현 감독님은 ‘영화감독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셨는데 스스로 자신의 직업이 재밌고 만족스러우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필름으로 담기위해 이러한 삶을 선택했다고 하시면서 학생들도 자신이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주셨다. 감독님은 특강을 마치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 환일고에서 명사특강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기셨다.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이 나올 것을 예상이라도 하신 듯이 감독님의 이메일을 알려주시며 특강 이후에 생긴 질문들을 보내달라고 하셨다. 이번 명사특강을 통해 평소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영화감독으로서의 역할과 삶을 알게 되었다. 또한 대중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자본에서 독립되어 창작되는 독립영화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2학년 류호빈 기자





학교행사

영어 사고력 발표 대회

2020학년도 9월 28일 제6회 영어 사고력 발표 대회가 환일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진행하였다. 예선을 통과한 1, 2학년 학생 12명이 본인들의 관심 주제를 조사하여 영어로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어 대회에서 'An Analysis of Hannibal & Yi Sun Shin (이순신과 한니발의 전략 비교)'라는 주제로 참가한 1학년 이준혁 학생이 금상을 차지했고, '30 Second Magic (뇌신경학으로 밝히는 창의성의 비밀)'을 주제로 발표한 1학년 박주형, 'How Can We Meet Happy People? (행복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1학년 박도원 학생이 은상을 각각 차지했다. 1학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던 대회였다. 그 외에 동상으로는 '2학년 정찬우, Nationalism (코로나로 변화된 일상)', '2학년 이은기 Paradox (생활 속 역설)', '2학년 박창하 How to be the Best in Amateur Football (축구의 기술)', '1학년 임준서 Fake News (가짜 뉴스 시대)', '2학년 이정재 The Monty Hall Problem (확률의 아이러니)'라는 다양한 주제로 참가한 학생들이 각각 수상하였다.

코로나 19의 상황 중이어서 다양한 주제로 발표에 참여한 학생들의 유창한 영어 실력을 많은 학생들이 강당에서 직접 듣지 못해 아쉬웠지만 그 어느 대회보다 참여한 학생들의 열기는 뜨거웠던 대회였다.



금상 이준혁

은상 박도원

동상 박창하

동상 이은기

학생 특강 대회

학생특강대회를 2020년 9월 21일 본교 대강당에서 진행하였다. 학생 특강 대회는 예선을 통해 주제의 참신함과 원고 내용으로 본선에 진출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시가적인 발표 자료를 준비하여 강의하는 형식으로 발표하는 대회이다. 이전까지는 예선에서도 심사 위원이 학생들이 원고를 숙지하고 발표하는 내용도 심사 기준이었으나 코로나 19의 상황으로 인해 원격 수업 및 등교 제한으로 인해 올해는 예선에서 대면으로 하는 발표 능력에 대한 심사 기준은 제외하였다.

코로나 19의 상황이 학생들의 특강 주제 선택에도 영향을 미쳐서 '코로나 팬데믹이 스포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로 볼 수 있는 동, 서양의 윤리 사상 차이' 등 관련된 주제가 등장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국어과, 수학과, 과학과, 사회과 대표 선생님들께서 심사위원을 맡아 주셨고 수학과 박경희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발표를 마치고 난 후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주제로 대회에 참여한 것에 대해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다.

학생 특강 대회 결과 대상으로는 '우리가 몰랐던 혈액형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한 2학년 김현수 학생이 차지했고 금상으로는 '벤센트 반 고호의 자화상 패션 분석'이라는 주제로 1학년 오정훈 학생, '마피아가 이탈리아 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마피아 딜레마'라는 주제로 2학년 신동균 학생이 차지했다.



대상 김현수

금상 신동균

은상 오정훈

창의적 산출물 대회

2020년 10월 28일, 영재학급에서 한 해 동안 연구한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는 '창의적 산출물 발표 대회'가 열렸다. 수학, 과학, 융합 분야 60명 학생들이 1~4명씩 조를 나누어, 영재수업에서 배운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조별로 특창적인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설계하고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연구 활동을 수행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행사이다.

올해에는 과학과 융합 영재학급은 물리 지학실에서 발표를 하였고 수학 영재학급은 생물실에서 각각 대회를 실시하였다. 먼저 선서를 하고 교장 선생님께서 훈화 말씀을 하신 후 발표를 시작하였다. 과학영재학급 1조의 '천연 물질의 살균력과 항균성'에 대한 발표 이후 2조의 '자기공명 방식 무선 전력 송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가장 신기했던 점이 그 친구들이 만들었던 기계가 진짜로 작동되는 기계였다는 것이다. 1학년 학생들의 발표도 인상 깊었다. 특히 표면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즉 넓게 퍼지는 정도와 늘어지는 정도가 정말 신기했다. 또한 계란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주제는 처음에는 간단한 주제인 줄 알았는데, 장력, 기속도 등 다양한 물리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학 영재학급은 9개의 조로 나누어 빅데이터, 화물, 암호, 수열, 게임 등 흥미로운 주제로 탐구하여 발표하였고 융합 영재학급은 20명의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각각 발명품을 출품하였다. 마스크, 손소독제, 옷걸이 등 생활에 유용한 발명품부터 '거북이 산책 관리용 시스템', 'Do it easy 문 손잡이' 등 다채로운 주제가 많아서 학생들의 독창성이 돋보였다.

탐구 과정과 결과를 발표하고 상호 질의, 응답을 통해 개선점과 오류를 검증하면서 서로의 연구방법과 알게 된 점을 나누는 시간이 뜻 깊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웠지만 열심히 수업해 주신 영재학급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긴 시간동안 탐구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학년 김민규 기자



창의기술보고서 대회

2020년 11월 4일 본교 강당에서 창의기술보고서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사전에 창의기술보고서를 낸 학생들 중에서 우수 보고서로 선정된 자연 5팀, 인문 5팀 학생이 발표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코로나 19의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주제로 창의기술보고서 대회에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코로나 19와 관련된 보고서도 있었고, 해체주의 패션, 자연과학과 관련된 주제 등 다양한 주제의 보고서가 있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린 마스크를 버릴 때 어떻게 버리면 좋을까 '마스크 분리수거'에 관한 보고서를 쓰고 발표회에 참여한 1학년 이준호 학생에게 금상이 돌아갔다. '수용액의 점열과 용액의 총괄성의 실험적 측정'에 대한 탐구로 참여한 2학년 고성주, 손민우, 오재환 학생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 그리고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참여한 1학년 김민근 학생에게 은상이 돌아갔다. 동상은 '항공 필름의 원리와 항공 작용에 대한 고찰'을 연구한 1학년 송민규, 2학년 김현수, 박서진, '해체주의 패션에 대한 탐구 보고서' 1학년 이승준, '온실 기체에 따른 토양 가열 속도와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 1학년 이승현, 박주형 학생에게 각각 돌아갔다.

대회에서 수상하지 못한 학생들도 자신이 완성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과정을 의미있게 여기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참신한 주제로 창의기술보고서 대회에 도전해 보길 바란다.



금상 이준호

은상 김민근

은상 오재환, 손민우, 고성주

동상 송민규, 박서진, 김현수



학교행사

토론대회

2020년 11월 12일(목), 16일(월) 양일 동안 환일고등학교에서는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 11회 토론왕 대회가 실시되었다.

예선은 11월 12일에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원탁토론의 방식을 적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여기서 승리한 8개의 팀은 CEDA토론 방식을 적용하여 대회를 진행하였다.

월요일 6시에 시작한 본선인 8강전은 속속속결로 진행되었다. 치열한 8강전, 4강전을 뚫고 결승전에서는 예선 1위팀인 하이 위즈덤(10118 이승현, 10211 윤기훈, 10915 임상하) 팀과 예선 2위팀인 준술랭 가이드(10114 송민규, 20113 이진호, 20202 고성주)팀이 승부를 겨루었다.

결승전은 '가상화폐 규제 방안 필요인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그 결과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한 '준술랭 가이드'팀이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더 많이 획득하여 우승을 차지하였다.

1학년 송민규 기자



'김현주' 작가와의 대화

2020년 11월 20일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쓰신 김현주 작가가 오셔서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우리에게 조언이 될 만한 뜻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작가님께서 "과거에 사소한 잘못이나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다면 자신에게 큰 선물을 주듯 자신을 용서하고 위로해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나의 실수로 인해 팀플레이가 생명인 토론대회에서 노력했던 만큼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했기에 이 말을 듣고 더욱더 큰 동기부여를 얻었고 토론대회를 계기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였다.

작가님의 생각으로는 혼자하는 여행이 좋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의 여행은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함으로써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싫고 불편하기에 혼자 단순하게 여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작가님의 생각에 공감 많이 되었다.

2학년 손석우 기자



진로 체험

11월 11일에는 동아리 체험활동이 있었다. 각 동아리별로 VR체험, 아쿠아 플래닛 63, 초콜릿 공방, 목공예 체험, 영화 관람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실시하였다.

'은행나무 신문부'은 흥대에 있는 '엥글 캔들'이라는 곳에 가서 석고방향제 만들기 체험을 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야의 수업을 가서 들뜬 마음으로 공방을 찾았는데 향수, 캔들, 석고방향제, 디퓨저 등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곳이었다.

향기로움이 가득한 공방 한쪽에 갈색병들이 즐지어 있는데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향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만드는 순서는 복잡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향과 모양 중에 나의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오차 없이 무게를 재어서 실수 없이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새로운 경험이었고 만드는 내내 즐거웠다.

'길우회'의 경우 마침 11월 11일이기도 해서 빼빼로 만들기 체험을 했는데 학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는 체험이어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진로 체험이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학년 김민규 기자



수능 결의 예배 및 결의식

2020년 11월 25일 수능 결의 예배 및 결의식을 진행하였다. 허성희 부장님의 사회로 진행된 수능 결의 예배는 박종관 목사님께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

결의식에서는 2학년 김명진 학생의 '축복하노라'라는 호른 연주가 있었고 김은미 이사장님께서 수능을 보는 고3 학생들을 위해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 학생회장인 이경수 학생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고, 이정철 교감님과 오혜경 진학부장이 수능시험 유의사항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였다.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잘 보라는 격려 차원에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준비한 선물을 고3 학생들에게 전달한 후 교정에서 펼쳐진 후배 학생들이 마련한 격려의 응원가와 현수막, 응원 도구들, 여러 선생님들의 격려가 수능을 잘 보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고3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코로나 19로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들었던 고3 선배님들이 수능에서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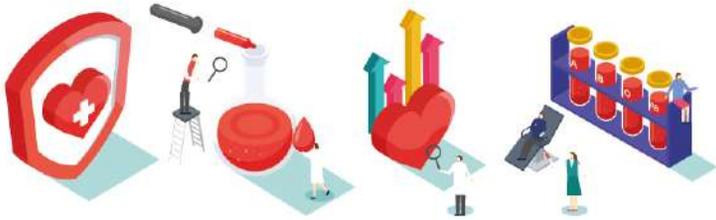
소감문

학생 특강 대회 수상 소감문

2학년 김현수



O형 혈액형을 가진 저는 1학년 때부터 평소 종종 헌혈을 해왔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인 상황이라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 모이는 것을 꺼려 하다 보니 어느 날 의료기관에 필요한 피가 부족하다는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헌혈의 집'을 방문하여 헌혈을 했는데 예전에는 조금 많아 보였던 헌혈 제공자들이 뉴스 기사처럼 현저히 줄어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같이 O형인 혈액형은 만능 혈액형으로 다양한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에게 헌혈을 할 수 있지만 A형, B형, AB형과 같은 혈액형들은 해당 혈액형인 사람들에게만 수혈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였고 그때부터 '혈액형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헌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혈액형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조사하고 공부하던 중 이번 특강 대회를 통해 '혈액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강 대회를 준비하면서 1학년 때 특강 대회에 출전 했던 경험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료수집이나 발표 연습을 할 때 1학년 때 부족했던 부분을 거울삼아 보완해서 준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준비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특강대회를 마치고 느낀 것은 무엇인지도 경험해 보고 부딪쳐 보는 것이 나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시작하기에 망설여진다면 이 순간을 생각하면서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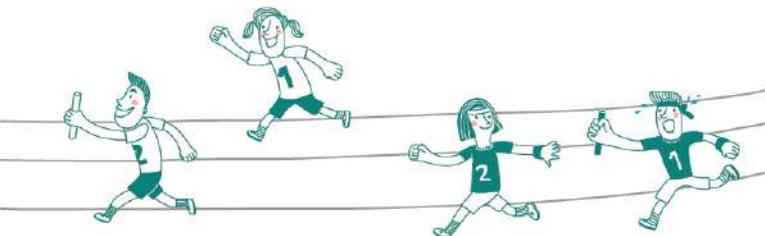


체육 대회 소감문

1학년 송원준



2020년 11월 12일 1학년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11월에 체육대회를 해서 추울 것 같다는 친구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다행히 날씨가 그다지 춥지 않았고 햇살이 따뜻했다. 모두들 운동장에 모여서 국민체조를 하고 개인 100m 달리기 예선을 시작했다. 달리가 빠른 친구도 있고 느린 친구도 있었지만 모두들 본인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100m 예선이 끝나고 대진표에 따라 반마다 흩어져서 자유투, 승부차기, 족구 등의 경기들을 했다. 자유투는 6반이 우승을 하였고 승부차기는 3반이 우승을 하였다. 또 족구는 4반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오전 활동이 끝나고 점심식사 후 농구 올스타를 하였다. 각반에서 농구를 즐기고 잘하는 친구들이 집합한 경기였다. 농구 올스타는 뒷 반인 6~10반 올스타가 앞 반인 1~5반 올스타를 이겼다. 그 후 다같이 스탠드에 앉아서 체육대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주목하는 축구 경기를 진행하였는데 예선을 통과한 3반과 5반의 축구 결승을 관람하였다. 5반 학생이 부상을 당해서 경기 진행에 영향을 주었다. 7반 신지민, 박주형 학생의 경기 해설이 재미를 더했다. 경기 결과는 4:0 으로 3반이 승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체육대회의 꽃 이어달리기를 하고 체육대회를 마쳤다. 승부차기, 자유투, 족구, 농구, 축구, 계주 등의 활동을 하면서 경기에 참여한 친구들 모두가 열심히 뛰는 모습,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반 친구들을 응원하는 모습, 경기에서 저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경기에서 이긴 팀에게 박수를 쳐주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았고 다친 친구 없이 잘 체육 대회를 기쁘게 마친 것 같다. 벌써부터 내년엔 있을 체육대회가 기대된다.



창의학술 보고서 대회 수상 소감문

1학년 이증호



2020학년도 창의학술보고서 대회에서 수상하게 된 이증호입니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게 지도해 주신 선생님과 응원해주고 격려해 준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항상 뭔가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저 혼자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에 강한 흥미를 느끼곤 합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모두와 관련된 일이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는 데에는 통합사회 시간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 사막화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들으면서 우리 일상 속의 환경문제를 다름으로써 나와 친구들 나아가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난생 처음 경험하게 된 코로나 19로 인해 매일 등교할 때 마스크를 쓰면서 이 마스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생수를 마시고 나서 빈 PET 병을 반복 사용하는 것이 자칫 세균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기사를 과학잡지에서 읽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 사용한 마스크를 따로 모아서 처리한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가 우리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지만, 마스크가 또 다른 오염원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스크가 환경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선정된 주제에 따라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증명할 실험을 디자인 해야 했는데, 이 과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마스크가 환경에 주는 악영향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실험을 디자인해서 실행하고 싶었지만, 과학에는 비약이 없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엄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마스크 사용 후의 세균 번식 여부를 엄밀하게 검증하는 방향으로 실험을 디자인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과학적 탐구에 더욱 노력하여 자랑스러운 환원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7회 감사기도문 쓰기대회 우수 기도문 - 일상의 감사 -

1학년 송민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사랑으로 저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심에 항상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가득찬 인생 구원해 주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삼일 만에 살아나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열쇠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도 제 옆에 있지 않고 혼자인 것 같은 시간에도 항상 내 옆을 지켜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주님을 떠나려 할 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성경말씀이 있고, 주님이 없는 인생을 살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통해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악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주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중심을 지키게 하시며 주님을 생명의 전신갑주로 악에서 구원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백성으로 명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제 인생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 태어나게 해 주사 복중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가정의 목자인 아빠가 주님을 믿으며 언제나 제 믿음과 가정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먹이고 저와 제 동생의 영육의 강건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엄마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저를 가르치며 언제나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엄마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동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커서 자신의 진로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생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운 환일학교에서 항상 말씀을 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의 아침을 경건회 시간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님들이 항상 같이 예배드리고 그들을 보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끝으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제 인생 곳곳에 배치해 주셔서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합창대회 소감문

지휘상 소감문

1학년 안성준



학기 초에 곡 선정을 위해 곡 목록을 보았는데 다른 것들은 모두 비슷한 느낌의 진지한 느낌의 곡이었는데 한 가지 곡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들어보았더니 중독성 있고 통통 튀고 재밌는 느낌이 있어 우리 반이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한 곡이 'happy things'이다. 합창 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고 할지 안 할지 확신도 되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 반은 못 하더라도 우리끼리 재밌게 즐기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연습을 했다. 처음에 지휘를 했을 때는 동작들이 정말 어색했고 박자가 점점 빨라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다 같이 연습도 많이 하고 친구들의 피드백 등을 받으며 고쳐 나가다 보니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었다. 합창 대회 당일 다른 학생들의 무대를 보니 정말 모두 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이 모두 멋있었다. 무대 직전 정말 긴장하고 있었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편하게 즐기고 오자고 하였고 그 덕분에 긴장이 덜 되었다. 무대에 막상 올라가니 너무나 즐겁고 긴장이 된다는 생각이 사라졌다. 무대가 끝나고 내려오니 합창 대회가 긴장 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진짜 즐거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처음 환일고등학교에 와서 합창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모든 멋진 무대들이 끝나고 수상발표를 하는데 우리 반과 내 이름이 호명되었다. 우리 반이 즐겁게 연습했던 장면들이 떠올랐고 너무 뿌듯했다. 내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날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았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합창을 하는 등 불편한 상황 속에서 합창 대회를 진행하였는데 다음 합창 대회 때문에 좀 더 편한 환경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휘상 소감문

2학년 노윤환



담임 선생님의 권유와 음악선생님의 지도에 힘입어 우리 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조력자로서 합창대회 학급 지휘를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학급 회장이어서 내게 주어진 일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합창대회 지휘를 맡았고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곡 선정이었다.

담임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이기도 하고, 학급 학생들이 우리 반 합창곡으로 좋은 곡이라고 동의해 주어서 우리 2학년 1반은 '천개의 바람이 되어' 라는 곡을 부르기로 하였다.

선곡을 하고 난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곡의 창작 배경과 의미를 알고 나니 우리 반 학생들이 합창대회 곡으로 선정됐 불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반 학생들이 파트별로 자신들의 음을 제대로 소리 내고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이었다.

모두에게 주어진 짧은 연습시간이었지만, 틈틈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쪼개서 파트별 연습을 하고, 화음을 넣고, 다 함께 맞추어 보는 과정에서 우리 반의 단결력을 알게되고 친구들 사이의 우정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예년과 다르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친구들과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의미 있던 합창대회로 기억될 것이다.

깊어가는 가을밤 함께 했던 우리들의 이번 합창대회에서 천개의 바람이 된 그들과 세상에 남아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함께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치유와 명화를 기원해 본다.



진로체험학습 소감문

초콜릿 공방 체험

1학년 장성주



동아리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서 내가 속한 길우회는 초콜릿 공방에 다녀왔다. 동아리별로 아쿠아리움, CGV 등 다양한 장소에 갔지만 초콜릿 공방에 간 것은 행운이 아닐 수가 없었다. 아마 초콜릿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운 좋게도 그날은 페페로데이였기 때문이다. 집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줄 생각을 하니 저절로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소중한 존재가 언제나 곁에 있음을 다시금 느꼈다.

초콜릿 공방 체험은 페페로 만들기, 수제 초콜릿 만들기, 곰 모양 막대 초콜릿 만들기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먼저, 페페로 만들기는 다크 초콜릿 또는 화이트 초콜릿에 막대 과자를 묻힌 다음 건조 시킨 딸기와 쥘리 등 자신이 원하는 토핑을 뿌리고 냉동시킨다.

두 번째로 수제 초콜릿 만들기를 했다. 템퍼링이 잘 되어진 초콜릿이 들어간 짤주머니로 여러 가지 모양의 틀에 초콜릿을 짜는 작업을 했다. 사실 이때 초콜릿을 짜면 짤주머니도 굉장히 많이 닳았는데 에어컨을 켜면 초콜릿이 굳는다고 해서 패 정성을 많이 들인 작업이었다. 아몬드 호두 라즈베리 등 다양한 견과류도 위에 올려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한테도 주변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막대가 있는 귀여운 곰 모양 틀 위에 다가 마찬가지로 짤 주머니를 이용해 초콜릿을 짜고 그 위에 견과류를 듬뿍 올렸다.

난생 처음 경험한 초콜릿 만들기였지만 충분한 재료와 도구 및 공방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과 도움 덕분에 즐겁고 안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초콜릿은 한 알 한 알 입에 넣으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콤한 여운이 남는다. 혹은 씹살한 여운이 남는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추억도 그렇다. 별과 하트 모양의 아름다운 틀 안에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차곡차곡 담아내는 행복함과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달콤한 추억이 되어 곱게 쌓일 것이다.

아쿠아플라넷 63과 63아트 견학

2학년 김명진



경배와 찬양과 다른 동아리 친구들과 63빌딩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처음 가보는 아쿠아플라넷 수족관과 처음 타보는 고속 엘리베이터, 전망대를 갈 생각에 부푼 마음으로 친구들과 버스에 올랐다. 가서 직접 보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입구부터 있었다. 껍에서만 보던 물고기, 아예 처음 보는 물고기들이 많았다. 특히 기다란 모양의 길쭉한 물고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수족관의 물고기들을 다 보고 난 후에, 우리는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와 63아트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내부

에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고, 마치 하늘에서 우리 동네를 보는 것처럼 붕 뜬 느낌이었다. 60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와는 비교도 안 되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이야말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다. 내부로 들어가니 조형물들이 각 주제별로 설치되어있었다. 또한 가는 길 골목골목에는 격려하는 문구가 적혀있어 마음에 큰 힐링이었다. 거울로 둘러싸인 방, 녹음이 우거진 방, 신비롭게 보랏빛으로 물든 방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친구들과 사진으로 많은 추억을 남겼다. 모든 작품들을 감상한 뒤에 내려오며 동아리별 단체사진을 찍고 체험 활동을 끝냈다.

63빌딩에는 무엇이 있을지 항상 궁금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학교에서 보내주신 체험활동으로 인해 궁금증이 풀린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물고기들도 보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추억도 쌓았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된 체험학습이었다. 학교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다 같이 나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인지 알게 된 가치 있는 배움이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른 곳으로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다.





명사특강 소감문

‘말(saying)과 범죄’ 명사 특강 소감문

2학년 임민혁



경찰대학교 교수이신 류부근 교수님께서 ‘말(saying)과 범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다. 먼저 법학에서의 명예는 사람의 내면적, 인격적 가치인 ‘내적 명예’, 자신이 느끼는 존재에 대한 감정인 ‘명예 감정’,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판인 ‘외적 명예’ 이렇게 있는데 형법에서의 명예는 ‘외적 명예’, 즉, 사회적 평판이다. ‘모욕’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명예 훼손과 모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공통점은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공개적 표현(사회적 효과)’라는 것이다. 차이점은 명예훼손은 사실의 표현이고 모욕은 주관적, 추상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평소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해서 알파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류부근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갔고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해서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다음으로 ‘공개적 표현’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다. 사실의 표현은 공개적이어야 한다. 즉, 공연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전과 가능성의 판단 방법은 표현하는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전과 가능성이 부정된다.

그 다음으로는 ‘객관적 사실’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다. 먼저, 사실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어야 한다고 하셨다. 또, 주관적인 의견이나 평가가 아닌 일정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사실의 적시’라고 한다. 하지만 사람의 발언은 의견과 사실이 혼재된 경우가 많고, 일정한 사실과 평가가 혼합된 함축적 표현들이 많아진다. 역사적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영화 명량, 드라마 공주의 남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역사적 사실은 객관적 입증이 불가하므로 사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의 정당화 사유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명예훼손이 정당화되는 사유는 먼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며, 공익적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인데, 이러한 표현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는 ‘기자의 언론 보도, 공익 제보, 소비자를 위한 이용 후기’이다.

강연이 끝나고 줌으로 교수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교수님에게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으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가능한가요?”라고 물었다. 교수님께서 비언어적 표현으로 명예훼손은 거의 어렵다고 하였고 모욕은 가능하다고 대답 해주셨다. 강연을 들은 뒤에 언제 어디서든지 말을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더욱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고 장난이라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면 그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으므로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관심있는 분야에 관해서 훌륭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으며 줌으로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신기하고도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영화감독으로서의 삶’ 명사 특강 소감문

2학년 임정민



이번 명사특강에서는 김대현 영화감독님을 모시고 ‘영화감독으로서의 삶’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었다. 김대현 감독님은 독립영화를 주로 찍으시는 분이셨다. 독립영화는 영화의 종류 중 하나로, 대중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만큼 자본에서 독립되어 창작, 예술에 집중하는 영화를 말한다.

영화감독이라고 하면 액션이나 코미디 영화같이 우리가 영화관에서 관람하는 영화를 만드는 모습만을 상상했었는데, 이번 발표에서 듣게 된 독립영화 감독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평소 글쓰기와 같은 창작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거대 영화 제작사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영화를 만드는 독립영화의 세계는 나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또한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감독님은 자신이 영화감독이라는 직업을 갖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스스로 자신의 직업을 재밌고 만족스럽게 여겼으며, 다양한 장르를 가진 영화라는 매체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필름으로 담기 위해 독립영화의 길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감독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감독님이 대중과 다른 길을 택하게 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또 좋아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다.

자칫하면 흘러가는 대로 살기 쉬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자기 주관과 창작의 혼을 불태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도 스스로의 개성을 잃지 않고 뜻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새기게 되었다.



인문학 특강 소감문

‘선거의 중요성’에 관한 특강을 듣고

2학년 신동균



미국의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이준근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다. 지금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시즌인 만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슈인 만큼 학교 친구들도 대선 뉴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누가 몇 명의 선거인단, 상원, 하원 등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이며, “그래서 누가 유리한 건데?”라는 질문도 자주 등장하였다. 강의에서는 미국의 선거제도를 설명해 주시면서부터 시작했다. 미국의 탄생, 주들의 연합, 헌법의 개정을 설명하며 미국의 복잡한 선거 제도가 탄생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었고, 상원과 하원으로 나뉜 것은 주들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각 주마다 같은 명수를 선발해 투표를 진행하면 인구수가 많은 주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 인구비례로 주어지는 하원의원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각 주마다 2명씩 자리가 있는 상원, 인구 비례로 선발하는 하원으로 이루어져 총 상원 100명, 하원 435명, 그리고 수도이자 특별주인 워싱턴 D.C에서 3명을 더 선출해 총 538명이 있는 것이다. 상원과 하원의원들이 투표를 하면 집계가 시작되고, 270표를 얻는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강의가 끝난 후 박사님께서 주신 3가지 토론 주제들로 조별 토론을 한 후 그것을 포스터로 제작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조는 ‘왜 선거는 공정해야 할까?’를 주제로 고르고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우리는 선거란 국민의 자신의 주권을 표현하고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이며, 민주주의의 성립의 기저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정선거가 발생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고 국민들의 정치참여 의사가 저하되며 독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리했던 대략적인 내용들로 발표가 끝난 후, 조금의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다. 국가란 존재하지 않으며, 구성원들끼리 서로 합의하고 계약을 맺은 개념만 존재한다. 이렇게 추상적인 ‘국가’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개념적인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선거이고 주권 실현이다. 실물이 아닌 만큼 기본적 합의를 깨뜨리는 부정선거와 같은 행위들은 결국 국가가 흔들리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특강은 평소 하던 학업적 사고에서 잠시 벗어나 국제정세와 국가와 공정, 사회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미중패권전쟁과 한국의 전략’ 특강을 듣고

2학년 최지민



2020년 11월 17일, 우리 환일 학생들은 정치학 박사이신 이준근 박사님을 모시고 ‘미·중 패권 전쟁과 한국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조별 토론과 발표를 하였다.

박사님께서 최근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 대하여 분석해주시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해주셨다. 또 북한의 실체와 우리나라의 전략에 대하여도 설명해주셨다.

최근 쟁점이 되는 미국 대선의 결과에 중점을 두고 설명해 주셨지만 짧은 시간 내에도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여쭙보고 그 답변도 받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특강을 다 듣고 난 후에 우리는 박사님께서 주신 주제를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공정해야 하는 이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토론하고 발표를 했다.

발표 우수 및 수상의 영광은 11조(금상-2학년 신동균, 지영훈, 최지민), 5조(은상-1학년 김민곤, 이영웅)에게로 돌아갔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렇게나마 인문학 특강에 참여하게 되어 우리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펼칠 기회가 되었고, 나중에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떨치게 될 환일 학생들이 미리 세계의 정치적 흐름을 간파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이준근 박사님과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교내상

영어 사고력 발표 대회 금상	학생 특강 대회 대상	체육대회 100M 달리기 1위	영어 단어왕 대회 금상	드론 레이싱 챌린지	창의기술보고서 대회 금상
1학년 이준혁	2학년 김현수	1학년 윤도은	2학년 유창환	1학년 이준혁	1학년 김형빈
2학년 안을	1학년 송민규	2학년 이진호	2학년 고성주	1학년 윤도은	2학년 김효인
2학년 안을	1학년 송민규	2학년 이진호	2학년 고성주	1학년 윤도은	2학년 김효인
1학년 임민석	2학년 노윤환	1학년 오정훈	2학년 송준	1학년 손강해	2학년 임성주



단체상 - 교내 합창 경연 대회

대상 2학년 7반		
금상 1학년 4반	금상 2학년 3반	은상 1학년 10반
은상 2학년 1반	동상 1학년 2반	동상 1학년 7반
동상 2학년 8반	동상 2학년 10반	퍼포먼스상 1학년 9반
퍼포먼스상 2학년 4반		

주요 학사 일정

1월	4일 신년하례식 및 예배 5일~8일 고1 기말고사	7일 고2 방학식 13일 고1 방학식 26일 개학식	2월	5일 졸업식 8일 종업식	16일~19일 신입생 O.T.
----	--------------------------------	------------------------------------	----	------------------	------------------